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장 유 경†

한솔교육문화연구원

한국 영아들의 초기 어휘발달을 연구하기 위해 MCDI를 이용하여 8개월부터 17개월 영아 563명의 월령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 시기 영아들의 이해어휘는 표현어휘보다 평균 3배 정도 더 많았으며,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7개월이었다. 둘째, 여아가 남아보다 표현어휘가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해어휘 수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초기 표현어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를 포함하여 명사류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보통명사는 27%에 해당하였다. 명사류와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휘들을 포함하면 전체 표현어휘의 90%가량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동사는 전체 표현 어휘의 4.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적 구조가 상이한 영어, 이태리어의 초기 어휘발달과 차이점보다는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 어휘습득과정에서 작용하는 제약성의 존재를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주요어 : 어휘발달, 표현어휘, 이해어휘, 8~17개월, 제약성

*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광금주, 장유경, 성현란과 심희옥에게 지원한 기초학문 육성과제(과제 번호: KRF-2002-074-HM1006)의 일부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방대한 연구의 진행에 수고해주신 이지연, 김수정, 김원경 연구원과 연구팀, 자료의 처리를 담당해주신 임현정, 연구에 참여해주신 아기들과 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장 유 경,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75 LG 마포빌딩, 한솔교육문화연구원

E-mail : ykchang24@hanmail.net

영어에서 영아를 지칭하는 “infant”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infans”이다. 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동’이라는 뜻을 가진다. 또 영어의 “baby”는 중세영어 “babble”에서 비롯되었다. 이렇듯 예로부터 발달하는 아이들을 영아, 유아, 아동으로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언어발달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못하던 영아들이 출생 후 1년 정도가 되면 첫 단어를 말한다. 그 후 약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웅알이로부터 시작하여 한 단어를 말하고 또 단어들을 조합하여 문장을 말한다. 또 곧이어 이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언어발달의 과정은 신비스럽기까지 하다.

영아들의 초기 어휘습득에 대한 연구들은 서구의 중상류층 영아들에 대한 대규모의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영어를 말하는 유아들의 경우, 평균 9개월경에 어휘들을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12개월이 되어야 새로운 어휘를 산출하기 시작하고 이해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3개월 경이며 12개월 이후 영아들은 하루에 평균 1단어를 학습하여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평균 50개의 어휘를 말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e.g. Bates, Dale, & Thal, 1995; Bloom, 1973, 1993; Bloom, Tinker, & Marguluis, 1993; Dromi, 1987, 1993; Nelson, 1973).

한편 최근에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 이외에도 모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초기에 습득어휘들이 다르게 분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언어에 따라 초기 습득어휘들을 비교분석하는 비교언어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lobin, 1992; Choi & Gopnik, 1995; Gopnik & Choi, 1990). 특히 한국어는 영어와 문장의 구조가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입력자극의 역할에 대한 이론화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모든 언어의 초기 획득과정에서 인지적 보편성이 작용한다는

제약성의 가설(Markman, 1989)과 반대로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다는 언어특수성 가설(Choi & Gopnik, 1995; Gopnik & Choi, 1990; Tardif, Gelman, & Xu, 1999)의 시험대로 한국어의 초기 어휘습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Au, Dapretto, & Song, 1994; Choi & Gopnik, 1995; Gopnik & Choi, 1990).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의 언어습득에 대한 자료는 아주 오래 전에 수집이 되었거나(조명한, 1982), 혹은 소수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어(이승복과 장유경, 1998; 최은희, 2000; Pae, 1993)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수집의 방법이 다를 경우에는 타 언어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장유경, 1997). 또한 대부분의 국내 언어발달 연구들은 언어발달의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며(이상금, 정세화, 이은화, 이정환, 1972; 이성진과 김광용, 1976; 이연섭, 권경안, 정인실, 1980; 이수향, 1999; 이승복과 장유경, 1998; 최은희, 2000; Pae, 1993) 영아의 의사소통 의도가 나타나는 8~9개월의 언어발달 초기부터 얻어진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의 초기 어휘 습득 연구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연구방법으로 사용되는 어휘체크리스트인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1993)를 사용하여, 언어발달의 초기단계인 8개월부터 17개월의 어휘발달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초기 언어습득의 기초 자료를 마련함과 동시에 특히 MCDI를 사용하여 8개월부터 16개월의 이태리 영아 195명과 659명의 미국 영아의 어휘습득을 연구한 자료(Caselli, Bates, Casadio, Fenson, Fenson, Sanderl, & Weir, 1995)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초기 어휘습득 현상에 대

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표현어휘보다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한다

어린 영아들은 아직 말을 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Hirsh-Pasek & Golinkoff, 1991; Oviatt, 1982). 초기 어휘습득에서 이해가 산출을 앞선다는 것은 부모보고 뿐 아니라 실험연구들에서도 확인된다. Goldin-Meadow, Seligman, & Gelman(1976)의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2세 유아에게 보통명사들을 이해하거나 산출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유아들은 자신이 산출한 어휘의 2~3 배정도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있었다. 어휘의 표현에 있어서는 영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에는 18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평균 50어휘들을 표현한다(Bates, Dale, & Thal, 1995; Bloom, 1973, 1993; Bloom, Tinker, & Marguluis, 1993; Dromi, 1987, 1993; Nelson, 1973).

일반적으로 한국 영아들의 어휘발달을 측정 한 연구들은 동일 월령의 외국 영아에 비해 전반적으로 습득 어휘수가 적게 보고되고 있다(최은희, 2000). 예를 들어, 18개월 영아의 경우, Fenson 등(1993)은 미국 영아의 경우, 여아가 113개, 남아의 경우 74개의 표현어휘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영아의 경우에는 MCDI-K를 사용한 Pae(1993)의 연구에서 18개월 영아의 평균 어휘수가 47개였고, MCDI-K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장유경(1997)의 연구에서는 18개월 영아의 평균 어휘수가 14개였으며, 비교적 중상류층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최은희(2000)의 연구에서는 18개월의 평균 어휘수가 74개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연구방법에 따라 동일 월령 대 영아의 어휘발달이 달

리 보고 되고 있고, 심지어는 MCDI를 이용하여 부모가 보고하는 동일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에 있어서도 연구의 방법(종단, 횡단), 참여한 영아의 수(5명~130명)에 따라서 월령 당 영아가 획득하는 평균 어휘수가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영아기의 언어발달은 영아에 따라 동일 월령대에서도 개인차가 크므로 표집의 크기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한 수의 한국 영아들을 표집하여 월령별 어휘발달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휘폭발

어휘 발달 과정에서 약 2세경이 되면 어휘습득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휘폭발”(Dore, 1979)을 경험하게 된다. 영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 13개월에 50개의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8개월경이다(Bates, Dale, & Thal, 1995; Bloom, 1973, 1993; Bloom, Tinker, & Marguluis, 1993; Dromi, 1987, 1993; Nelson, 1973; Lamb, Bornstein, & Teti, 2002). 그러나 특히 16개월 이후가 되면 많은 영아들이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급속한 발달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가 어휘폭발의 시기가 된다.

어휘폭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McShane(1980)는 그 기제를 언급하지는 않고 영아들이 모든 사물은 이름을 가진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명명 통찰(naming insight)”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어휘폭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한 가지 입장은 어휘폭발의 시기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가 함께 발달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는 영아가 더 많은 어휘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Bates, Bretherton, & Snyder, 1988; Bretherton & Bates, 1984) 이는 미국

영아들 뿐 아니라 일본영아들에게도 적용된다 (Tamis-LeMonda, Bornstein, Cyphers, Toda, & Ogino, 1991).

그러나 모든 영아에게 있어서 어휘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영아들은 어휘의 증가가 점진적이고 완만하다(Bates & Carnevale, 1993). 이는 연속적인 말소리의 해석능력의 향상(Fernald, Pinto, Swingley, Weinberg, & McRoberts, 2001), 유목화능력의 향상(Gopnik & Melzoff, 1987), 언어의 화용론적인 사용에 대한 이해(Ninio, 1995) 등의 다양한 인지능력의 향상과 관계된다.

한국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에는 22개월 이후에 표현하는 어휘의 수가 급증하여 10여일 만에 15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장유경, 1997). 그러나 이 결과도 소수의 영아에 대한 관찰에 근거하므로 대규모 표집을 통해 한국 영아의 어휘폭발 현상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남녀의 성차

동일한 월령의 영아들도 어휘습득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초기 언어발달에서 남녀의 성차는 거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차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연구인 Brown(1973)의 연구에서도 여아인 Eve는 남아인 Adam에 비해 1년 정도 발달이 빨라서 2세에 평균 3개를 발화하였으나 Adam은 3세가 되어야 3개의 발화가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영어권 영아들과 이태리 영아들의 어휘발달을 MCDI 어휘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알아본 연구(Caselli, Casadio, & Bates, 2001)뿐 아니라 비슷한 방법으로 미국 영아의 어휘습득을 조사하였을 때에도 남녀간의 성차는 분명하게 나타났다(Tamis-LeMonda, Bornstein, Kahana-Kalman, Baumwell, & Cyphers, 1998). 남아와 여아는 첫 50 어휘를 표현하는 시기, 두 단어 발화시기, 과거

에 대한 첫 언급시기에 있어서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으며 이 모든 측정치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적으로 더 빨랐다.

한국 영아들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아의 평균 어휘수가 남아의 평균어휘수보다 16~18개월에서는 1.5배, 19~21개월에서는 2배 정도 더 많았다. 그 이후에는 차이가 점점 감소하여 28~30개월 이후에는 남녀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최은희, 2000). 그러나 16개월 이전의 어휘습득 초기 단계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어떤 어휘들이 먼저 습득되는가?

영아가 어떤 어휘들을 먼저 학습하게 되는지는 예로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Vygotsky(1962), Werner와 Kaplan (1950), 그리고 Piaget(1926)는 모두 초기 어휘학습의 기제에 관심을 가졌다. Piaget는 감각운동기 말에 영아가 비언어적인 성격의 상징적 표상을 구축하게 되고 이것이 어휘학습의 길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였다. Vygotsky(1962)는 영아의 초기 어휘조차도 의사소통의 행위이며 처음에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배우고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사교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Werner와 Kaplan (1950)은 초기 어휘들은 참조물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들은 처음엔 그들이 표상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들리다가(음운적 상징성) 나중에는 모양이나 색, 혹은 크기에 근거하여 단어들이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유사성이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에게까지 단어들을 학습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이론가들은 유아가 첫 단어들 배울 때 사용하는 참조물의 본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영아들의 어휘습득의 제 현상은 많은 연구자들이 풀고자 했던 수수께끼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많은 이론들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제약성이론이다. 제약성이론에서는 영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적 제약성이 어휘습득 상황에서의 모호함을 줄여주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특정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한다(Markman, 1989; Markman & Hutchinson, 1984; 장유경, 1997). 따라서 제약성의 이론에 따르면 영아들이 먼저 습득하는 초기 어휘들은 인지적 제약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물의 이름들(예: ‘공’, ‘맘마’)이 된다. 한편 언어발달에 있어 언어적 환경의 영향, 특히 어머니 등 양육자의 상호작용 유형(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Akhtar & Tomasello, 2000; Baldwin, 2000; Bloom, 1998; Bruner, 1974/1975; Tomasello, 1992),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적 입력의 영향을 강조하는 입장(장유경, 이근영, 광급주, 성현란, 2003; Hart & Risley, 1995; Hoff & Naigles, 2002;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Weizman & Snow, 2001)이 있다. 언어습득에서 상호작용적인 환경의 영향에 주목하는 위의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초기어휘들이 어떤 단어들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어휘들이 습득되는 맥락이 성인과 영아의 상호작용 맥락이며 이 맥락 안에서 영아와 성인이 공동주의(joint attention)를 기울이는 사물이나 사상, 혹은 영아들이 다양한 맥락 안에서 풍부한 사례들을 듣는 어휘들이 초기에 습득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영역일반적인 주의기제와 기억능력으로 어휘습득을 설명하는 연합주의적 설명이 있다. 연합주의적인 이론에서는 단어와 참조물이 짝지어 제시되는 빈도를 계산하여 그 빈도가 높은 어휘들을 영아들이 먼저 학습한다고 한다(Plunkett, 1997; Smith, 1995).

최근에는 ‘발현적인 통합모델(emergentist coalition model)’이 대두되어(Bloom, 1998) 어휘습득의 시기

별로 어휘습득을 인도하는 이론이나 단서들이 다르며 따라서 언어습득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초기 어휘습득을 설명하고 있지만 다음에 소개되는 언어특수성 이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론들에서 초기 어휘들은 영아들이 친숙하게 많이 들으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될 것을 공통적으로 예언한다.

명사를 동사보다 더 많이 말한다

지금까지 초기의 어휘습득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언어적 차이와 무관하게 언어를 습득하는 영아들이 지닌 보편적이고 인지적인 제약성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인지적 제약성은 영아들이 어휘습득 상황에서의 모호함을 줄여주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어휘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Markman, 1989; Markman & Hutchinson, 1984; 장유경, 1997; 1998). 제약성 이론에 따르면 영아에게 제공되는 언어적 입력 중에서 명사는 동사보다 의미하는 바가 더 구체적이고, 비교적 지각하기 쉬우므로(Gentner, 1982; Caselli, Casadio, & Bates, 2001), 영아들이 비교적 쉽게 습득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보편적인 인지적 제약성의 가설과 반대로 초기 어휘습득과정부터 언어적 특징이 반영된다는 언어특수성 가설이 한국어의 어휘획득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어특수성 가설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동사가 강조되는 한국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 초기 어휘획득과정에는 동사편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Gopnik & Choi(1990, 1995)는 한국어의 어휘습득을 연구하여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문장

의 말미에 놓여 지각적으로 더 현저하고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명사보다 초기 어휘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따라서 동사가 명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습득될 것이라고 ‘언어특수성(language specificity)’을 주장하였다. 한국어 이외에도 중국어(Tardif, Fletcher, Liang, & Zhang, 2002)에서도 동사의 편향이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어처럼 동사가 강조되는 이태리어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명사편향이 보고되고 있으나(Caselli, Bates, Casadio, Fenson, Fenson, Sanderl, & Weir, 1995), 상이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구방법의 차이가 언급되고 있다(Chang-Song & Pa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어휘습득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양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CDI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한국 영아들의 초기 어휘습득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와 이태리어의 초기 어휘습득을 연구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8개월부터 17개월까지 월령집단별 피험자의 수와 남녀 구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도구

단어 목록은 최근의 선행연구 등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 Fenson, Dale, Reznick, Thal, Bates, Hartung, Pethick, & Reilly,

표 1. 월령집단 별 사례수

월령집단 (개월)	사례수		
	남	여	전체
8	16	29	45
9	29	27	56
10	35	24	59
11	30	31	61
12	27	28	55
13	29	30	59
14	27	31	58
15	27	29	56
16	32	27	59
17	26	29	55
전체	278	285	563

1991)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들에게 적절하게 일부 수정한 MCDI-K: 영유아용(배소영, 2002)을 사용하였다. MCDI는 여러 언어로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어휘체크리스트로(Dale, 1991; Fenson, Dale, Reznick, Bates, Thal, & Pethick, 1994) 어머니가 직접 체크리스트에 아동의 표현어휘(영유아용에는 이해어휘 포함)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어판인 MCDI-K는 10여년에 걸쳐 한국 영아들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되었고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배소영, 2003).

MCDI-K: 영유아용에는 총 284개의 낱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163개(약57%)의 명사와 43개(약15%)의 동사, 그리고 20개(7%)의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용에는 낱말검사 이외에 의사소통행동을 체크하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절차

검사자가 해당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MCDI-K

의 사용법을 얼마나 영아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어머니 보호자가 직접 MCDI-K를 보며 각 어휘마다 영아가 그 어휘를 듣고 이해하는가, 혹은 그 어휘를 직접 표현하는가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특히 표현에서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해 영아가 발화를 하는 경우, 모방하는 경우, 어쩌다가 한 번 정도 발화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참조물이 없을 때에도 영아가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발화하는 경우로만 제한하도록 하였다. 어머니 보호자들이 MCDI-K를 작성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월령에 따라 달랐으나 평균 10-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처리

Bates, Marchman, Thal, Fenson, Dale, Reznick, Reilly, & Hartung(1994)에 따라 이해와 표현어휘의 품사범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명사류: 광범위하게 보통명사와 고유명사, 장소,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를 포함한다.
2. 보통명사: 명사류에서 바깥 것, 장소, 소리 및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을 제외한 범주로 동물, 탈것, 장난감, 음식, 옷, 신체부위, 가정용품, 가구 및 방의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
3. 고유명사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
4.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 빵방, 음메
5. 일상생활의 일과, 그 밖의 다양한 범주를 나타내는 단어들: 예를 들어, '빠이빠이', '안녕' 등 인사말이나 '네', '응', '고마워'와 같이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
6. 동사: '앉다', '서다', '가다' 등과 같이 동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
7. 형용사: '예쁘다', '행복하다'와 같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들
8. 서술어: 동사와 형용사

9. 문법적인 기능어: 대명사, 의문사, 전치사, 수사

위와 같이 단어들이 속한 범주를 나누는데 있어서의 한 가지 기본적인 전제는 한 단어 시기의 영아가 예를 들어, '맘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이 명사로 음식을 가리킬 수도 있고, '맘마 주세요'라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지 않고 그 단어가 성인 언어의 범주에서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은 MCDI 등의 어휘목록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따르는 가정이다.

결과 및 논의

발달에 따른 어휘수의 변화

8개월부터 17개월까지 한국 영아들의 월령 집단별 표현어휘 수와 이해어휘 수를 알아보았다(표 2). 먼저 17개월까지의 평균 이해 및 표현어휘 수에서는 표현어휘(M=21.1)보다는 이해어휘 수(M=66.8)가 3배정도 더 많았으며 평균 이해어휘는 8개월(M=24.4)에서 12개월(M=63.4)의 4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9개월이 지난 17개월(M=102.3)에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현어휘수도 역시 월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표현어휘수는 8개월(M=2.2)에서 12개월(M=12.8)사이 4개월 동안에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다시 12개월에서 13개월(M=25.5)까지 1개월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후 13개월에서 17개월(M=53.3)까지는 4개월 동안 다시 2배 증가하였다. 돌 직후 1개월 사이에 표현어휘가 급증했으며 표현어휘가 50여개가 되는 시점은 17개월이었다. 영어를 말하는 영아들의 경우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표 2. 월령 집단 별 표현 및 이해어휘의 평균, 표준편차와 범위 (N=563)

유형 개월	표현어휘				이해어휘			
	남	여	전체	범위	남	여	전체	범위
8	2.13 (1.78)	2.17 (1.85)	2.16 (1.81)	.00- 6.00	32.13 (32.24)	20.17 (20.63)	24.42 (25.66)	.00-106.00
9	2.93 (3.38)	2.59 (2.12)	2.77 (2.82)	.00- 14.00	27.86 (25.22)	22.67 (22.60)	25.36 (23.92)	.00- 94.00
10	2.91 (2.84)	7.58 (16.46)	4.81 (10.84)	.00- 83.00	29.97 (24.85)	50.46 (37.09)	38.31 (31.79)	.00-173.00
11	8.00 (16.33)	11.52 (24.01)	9.79 (20.50)	.00-111.00	33.00 (26.93)	49.16 (34.58)	41.21 (31.85)	.00-144.00
12	10.56 (15.77)	14.86 (23.97)	12.75 (20.29)	.00-103.00	58.63 (36.93)	68.00 (48.16)	63.40 (42.88)	.00-158.00
13	19.24 (25.19)	31.57 (37.40)	25.51 (32.32)	.00-126.00	70.83 (44.18)	81.10 (59.85)	76.05 (52.54)	.00-210.00
14	25.85 (24.98)	29.10 (33.36)	27.59 (29.55)	2.00-155.00	77.70 (45.62)	92.03 (64.43)	85.36 (56.44)	.00-192.00
15	17.04 (18.83)	40.41 (43.71)	29.14 (35.77)	.00-207.00	76.70 (44.86)	106.31 (71.26)	92.04 (61.31)	.00-232.00
16	39.25 (50.21)	41.00 (46.46)	40.05 (48.12)	.00-212.00	116.69 (74.64)	107.04 (72.72)	112.27 (73.29)	.00-263.00
17	42.69 (53.17)	62.72 (56.57)	53.25 (55.41)	.00-228.00	105.19 (52.26)	99.56 (70.78)	102.33 (62.21)	.00-228.00
전체	17.37 (30.75)	24.68 (38.17)	21.07 (34.87)	.00-228.00	63.44 (53.09)	70.13 (61.63)	66.83 (57.62)	.00-263.00

시점은 18개월이었다(Lamb, Bornstein, & Teti, 2002).

한편 표 2에 제시된 월령 집단 별 표현 및 이해 어휘수의 표준편차와 최소, 최대 어휘수의 범위를 보면 동일 월령에서도 어휘발달에 있어 개인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월령 집단에서 표현어휘수가 0인 영아가 있었으며 17개월 집단의 경우 최대 어휘를 가진 영아의 표현어휘수는 최고 228개였다.

MCDI를 이용하여 8개월부터 16개월까지 영어와 이태리어를 말하는 영아들을 조사한 Caselli 등(1995)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8개월에 미국 영아들의 경우 표현어휘가 1.8개, 이태리 영아들의 경우 1.1개였으며 한국 영아들은 2.2개였고 12개월에는 미국과 이태리가 각각 10개와 9개, 한국 영아들의 표현어휘는 12.8개로 미국, 이태리, 한국 영아들의 초기 표현어휘수는 언어구조의 차

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해보였다. 그러나 12개월 이후 월령이 증가하면서 언어 간 표현어휘수의 차이가 커져서 16개월에 미국 영아의 표현어휘수는 64개, 이태리 영아는 27개였으며 한국 영아는 그 중간인 40개였다. 한국 영아들의 경우 MCDI-K를 사용했던 최은희(2000)의 연구에서는 16개월 평균 표현어휘수가 32개였으나 이 경우 표집된 영아의 수가 월령 당 11명으로 본 연구보다 5배 이상 적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aselli등의 연구에서는 미국 영아와 이태리 영아들 간의 표현어휘의 차이를 표본 수(미국 영아: 659, 이태리 영아: 195)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Caselli의 해석을 그대로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해 본다면 16개월의 어휘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한국 영아의 표현어휘수(40개)가 미국 영아들(64개) 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이태리 영아(27개)에 비해서는 많았으며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영아가 563명으로 미국 영아에 비해 100여명 가량 적었고 이태리 영아에 비해서는 300명 이상 많았던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언어발달의 성차 및 어휘폭발

8개월부터 17개월 사이에 월령별 표현 및 이해어휘 수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월령(10) X 성별(2) X 어휘종류(2: 표현어휘/이해어휘)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현어휘수는 성별과 월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더 자세히는 여아(M=24.68)가 남아(M=17.36)보다 표현어휘수가 많았다($F_{1,362}=7.65, p=.006$). 그러나 이해어휘수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어휘발달 과정 중에서도 표현어휘수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어휘를 표현하지만 이해에는 성차가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어휘의 경우, 표현어휘보다 어머니의 주관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 성차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월령에 따라서도 표현어휘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_{9,362}=16.54, p=.000$),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17개월은 16개월보다 어휘수가 많았고($p<0.01$), 이는 다시 13, 14개월보다 많았으며($p<0.01$) 마지막으로 8, 9, 10, 11, 12개월의 표현어휘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p<0.01$) 역시 12개월 이후 13개월부터 표현어휘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어휘수에 있어서 성별과 월령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이해어휘에 있어서도 월령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F_{9,362}=17.20, p=.000$),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16개월은 12, 13개월보다 ($p<0.01$), 이들은 다시 8, 9, 10, 11개월보다($p<0.01$) 어휘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어휘는 표현어휘수가 급증하는 13개월보다 1개월 앞선 12개월부터 이해어휘수가 급증하여 이해가 표현에 앞서 발달하였다.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모두에서 성별과 월령 간의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관찰된 월령 안에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수의 표현어휘가 증가한 시기를 찾아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월과 13개월 사이에 12.76개, 16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13.2개가 증가하여서 이 시기 영아들은 주당 평균 3개 이상의 새로운 표현어휘를 습득한 셈이다. 그러나 17개월 이후에 이보다 더 본격적인 어휘폭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휘구성에 있어서 발달적 차이

장유경(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들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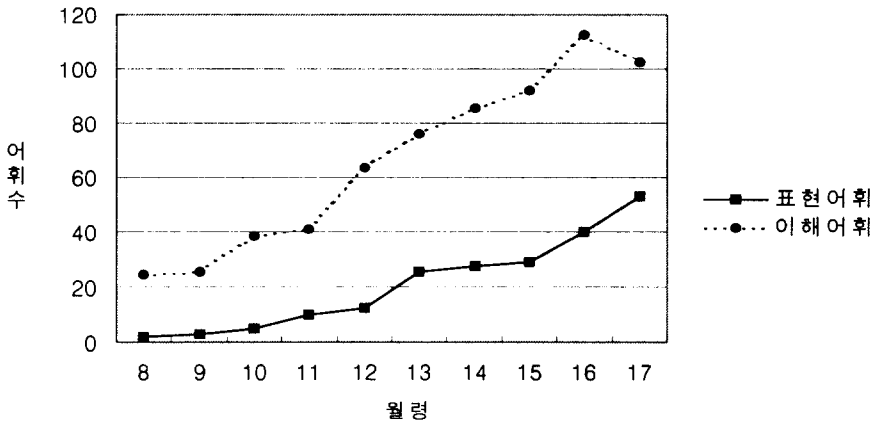


그림 1. 월령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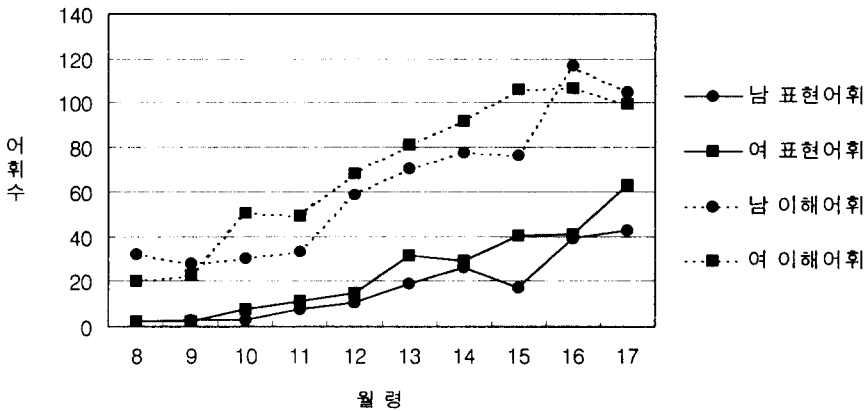


그림 2. 월령 및 성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수

우 표현어휘수가 증가하면서 동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였다. 영아들의 초기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들이 어떠한 종류의 어휘들로 구성되는가, 그리고 어휘의 구성이 영아의 어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MCDI의 어휘항목 분류에 따라 나누었다. 먼저 Caselli 등(1995)에서처럼 영아들을 표현어휘수에 따라 (1) 0 개 (2) 1-5개 (3) 6-10개, (4) 11-20개 (5) 21-50개 (6) 50개 이상의 6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해어휘 수에 있어서도 (1) 0-20개, (2) 21-50개, (3) 51개-100개, (4) 101개-150개, (5) 151개-200개, (6) 201개 이상의 6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해어휘수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어휘의 종류들이 서로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3과 표 4는 각각 표현어휘집단과 이해어휘 집단별로 품사별 구성비율을 보여준다.

먼저 영아들이 표현한 어휘들 중에서 동물, 탈것, 장난감, 음식, 옷, 신체부위, 가정용품, 가구

표 3. 표현어휘수 집단에 따른 어휘 구성비율(%) 및 표준편차

어휘범주	표현어휘수					전체 (N=505)	F	P
	1-5 (N=198)	6-10 (N=84)	11-20 (N=74)	21-50 (N=75)	51 이상 (N=74)			
명사류전체	83.92 (29.36)	67.27 (27.57)	59.11 (25.47)	62.46 (16.73)	60.13 (14.64)	70.84 (27.30)	23.25	.00
Scheffé	a	b	b	b	b			
(보통명사)	18.76 (26.06)	24.62 (17.80)	25.05 (15.61)	35.84 (15.14)	42.82 (12.75)	26.72 (22.06)	23.30	.00
Scheffé	a	a	a	b	b			
(사 략)	58.91 (36.05)	29.55 (16.67)	15.96 (10.03)	11.24 (6.24)	6.82 (3.55)	33.02 (32.49)	104.10	.00
Scheffé	a	b	c	c	c			
(소 리)	5.61 (16.58)	12.12 (15.33)	17.22 (14.69)	13.31 (10.59)	7.39 (4.61)	9.8 (14.68)	11.78	.00
Scheffé	a	abc	c	bc	ab			
일상생활	11.11 (25.00)	27.56 (26.26)	31.62 (23.85)	21.68 (12.96)	13.53 (4.72)	18.78 (23.10)	17.48	.00
Scheffé	a	c	c	bc	ab			
동사	1.25 (6.77)	1.12 (4.38)	2.72 (6.51)	5.64 (7.91)	15.39 (10.38)	4.17 (8.72)	57.70	.00
Scheffé	a	a	ab	b	c			
형용사	.25 (2.51)	1.96 (5.36)	3.06 (5.40)	5.64 (6.29)	6.40 (3.55)	2.65 (4.98)	37.83	.00
Scheffé	a	ab	b	c	c			
대명사	2.18 (10.33)	1.32 (4.70)	1.88 (4.15)	2.21 (2.68)	1.44 (1.57)	1.89 (7.03)	.34	.85
Scheffé								
양·수·정도	.34 (3.34)	.20 (1.82)	.99 (2.40)	.76 (1.66)	1.26 (1.14)	.61 (2.55)	2.84	.02
Scheffé	a	a	ab	ab	b			
기능어	.94 (6.54)	.57 (3.94)	.62 (2.16)	1.62 (3.05)	1.85 (2.28)	1.07 (4.72)	1.21	.31

표 4. 이해 어휘수 집단에 따른 품사별 구성비율(%) 및 표준편차

품사범주	이해 어휘수							F	p
	1-20 (N=101)	21-50 (N=128)	51-100 (N=145)	101-150 (N=80)	151-200 (N=50)	201 이상 (N=14)	전체 (N=518)		
명사류	42.23 (28.19)	54.12 (17.20)	58.12 (12.61)	57.42 (8.99)	59.80 (6.81)	61.32 (4.05)	54.17 (18.06)	13.64	.00
Scheffé	a	b	b	b	b	b			
(보통명사)	22.71 (23.22)	37.50 (16.17)	42.85 (11.19)	44.10 (7.55)	45.05 (6.31)	45.12 (4.20)	38.07 (16.75)	30.40	.00
Scheffé	a	b	b	b	b	b			
(사 람)	15.04 (17.60)	9.35 (7.42)	6.91 (2.96)	5.42 (1.99)	5.18 (1.44)	5.64 (.67)	8.67 (9.42)	15.98	.00
Scheffé	b	ab	a	a	a	a			
(소 리)	2.75 (7.51)	4.49 (5.36)	4.82 (4.60)	4.23 (2.64)	5.08 (1.87)	4.99 (1.63)	4.27 (5.10)	2.54	.03
Scheffé	a	ab	ab	ab	ab	b			
일상생활	45.13 (28.74)	23.64 (11.96)	14.51 (6.07)	11.42 (3.47)	9.06 (2.83)	7.34 (2.36)	21.54 (19.18)	78.77	.00
Scheffé	a	b	bc	c	c	c			
동사	8.33 (11.86)	13.49 (10.10)	16.89 (8.34)	18.78 (6.06)	17.64 (4.56)	17.23 (1.66)	14.75 (9.62)	17.07	.00
Scheffé	a	ab	b	b	b	b			
형용사	3.59 (7.76)	6.09 (5.76)	6.67 (4.28)	7.19 (2.68)	6.72 (1.90)	6.91 (1.07)	6.02 (5.28)	6.04	.00
Scheffé	a	ab	ab	b	ab	ab			
대명사	.22 (1.42)	.86 (1.93)	1.21 (1.91)	1.81 (1.54)	2.05 (1.05)	2.14 (.91)	1.13 (1.78)	13.15	.00
Scheffé	a	ab	abc	bc	c	c			
양수.정도	.01 (.76)	.49 (1.44)	1.10 (1.58)	1.20 (.93)	1.40 (1.00)	1.90 (.66)	.81 (1.34)	16.00	.00
Scheffé	a	ab	bc	bc	c	c			
기능어	.43 (1.99)	1.31 (3.57)	1.50 (2.69)	2.18 (2.40)	3.33 (2.25)	3.16 (2.12)	1.57 (2.84)	9.66	.00
Scheffé	a	ab	abc	abc	c	bc			

및 방의 범주에 해당하는 어휘를 포함하는 보통 명사는 전체 표현어휘의 26.7%를 차지하였고 여기에 바깥 것, 장소,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을 더 포함한 명사류는 전체 표현어휘의 71%를 차지하였다. 이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은 전체 표현어휘의 33%로 초기 표현어휘의 1/3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명사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용어로 ‘네/옹’, ‘만세’, ‘빠이빠이’, ‘쉬’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며 18.8%를 차지하였고, ‘뽁뽁’, ‘꿀꿀’등 동물이나 사물의 소리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9.8%를 차지하였다. 그 이외에 동사는 4.2%를 차지하였다. 종합하면 초기 어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를 포함하여 명사류가 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휘, 동물이나 사물소리가 많아서 이 세 범주만 합해도 전체 표현어휘의 90%가량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초기 습득 어휘들에도 의성어 등 쉽게 분류되기 어려운 어휘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이상이 명사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장유경, 1997, 최은희,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영아의 표현어휘수에 따라 명사와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변화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명사와 기능어를 제외하고 모든 어휘범주에서 표현어휘수에 따라 그 비율이 유의하게 달라졌다. 특히 Scheffé 사후검증의 결과 전체 표현어휘수가 21개 이상(M=35.8)이 될 때 보통명사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F_{4,500}=23.30, p=.000$), 동사의 경우에는 전체 표현어휘수가 21개 이상(M=5.6)일 때와 51개 이상(M=15.4)일 때 또 한번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F_{4,500}=57.70, p=.000$). 예를 들어, 전체 어휘수가 50개 이상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동사의 비율이 15%까지도 증

가하였다.

이해어휘의 경우에는 보통명사(M=38.1),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휘(M=21.5), 동사(M=14.8)의 순으로 나타나서 동사의 비율이 표현어휘의 경우보다 증가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어휘보다 이해어휘에서 동사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동사의 경우에는 영아들이 이해했을 때 이를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다른 어휘들에 비해 이해여부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일 수 있다. 표현어휘와 마찬가지로 이해어휘에서도 이해어휘 수에 따라 각 어휘범주들의 비율은 유의하게 달라졌다.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보통명사는 전체 이해어휘수가 21개 이상일 때 크게 증가했으며, 동사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해어휘수가 21개 이상일 때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F_{3,512}=17.07, p=.000$).

이상의 결과를 영어, 이태리어 자료(Caselli 등, 1995)와 비교해보면, 영어, 이태리어, 한국어에서 표현어휘 중 보통명사의 비율은 30.2%, 28.8%, 26.7%로 전체 표현어휘의 1/4을 넘었고, 여기에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을 포함한 명사류의 비율은 영어, 이태리어, 한국어에서 각각 75.5%, 82.0%, 61%였다. 따라서 한국어와 언어적 구조가 상이한 영어와 이태리어에서도 초기 표현어휘 중 명사의 비중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동사의 비율은 영어와 이태리어에서 각각 2.1%, 2.3%, 한국어에서는 4.2%로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 언어모두에서 초기 표현어휘 중 보통명사의 비율이 동사의 비율보다 6~10배 더 많았다. 이는 언어특수성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최소한 17개월까지의 초기 어휘발달에서는 언어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명사가 동사보다 더 많이 습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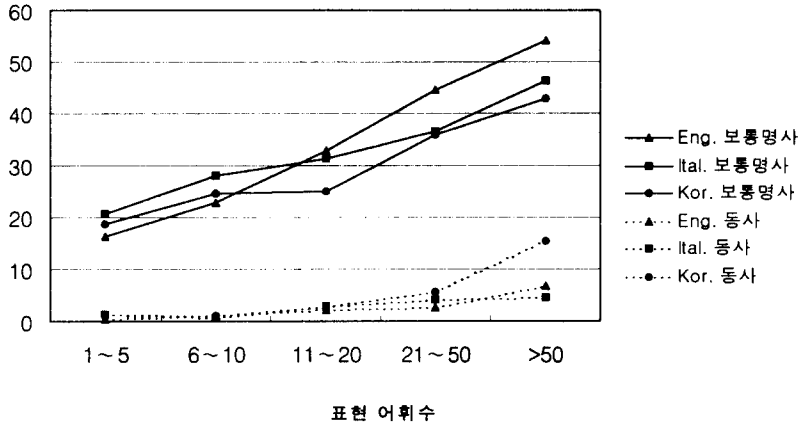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이태리 영아(Caselli 등, 1995)와 한국 영아의 표현 어휘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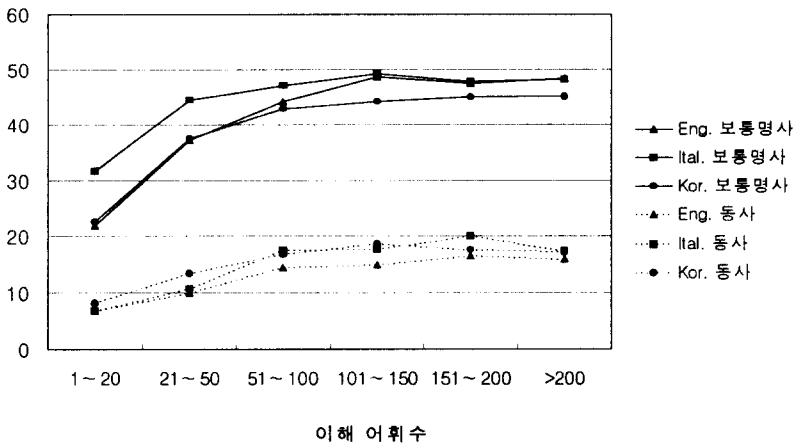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이태리 영아(Caselli 등, 1995)와 한국 영아의 이해 어휘수 비교

초기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내용

다음은 8개월부터 17개월까지 한국의 영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50개 어휘(표 5)와 가장 많이 이해하는 50개의 어휘를 알아보았다(표 6).

영아들이 많이 표현하는 50어휘 중 1-10위의 어휘들은 주로 일상생활 용어(예; 까꿍, 네/응, 빠이빠이), 사람의 이름(예; 엄마, 아빠), 음식이름

(예; 맘마, 물, 과자/까까), 소리(예; 멍멍) 혹은 동물이름(예; 멍멍이)이었으며 이는 영어와 이태리어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Caselli, Casadio, & Bares, 2001). 영어에서 첫 5단어가 “daddy”, “mommy”, “bye”, “hi” 그리고 “uh-oh”였고 이태리어에서는 “mamma(엄마)”, “papa(아빠)”, “bau-bau(개 짖는 소리)”, “pappa(음식/식사시간)”, “nonna(할머니)”였다.

표 5. 한국 영아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50단어와 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엄마	405	71.93	26	뜨거워	91	16.16
2	아빠	381	67.67	27	빵빵	89	15.81
3	맘마	295	52.40	28	할머니	84	14.92
4	까꿍	196	34.81	29	공	81	14.39
5	멍멍	189	33.57	30	양말	78	13.85
6	네/응	186	33.04	30	줘/주세요	78	13.85
6	빠이빠이	186	33.04	32	우유	75	13.32
8	물	169	30.02	33	꽃	74	13.14
9	과자/까까	164	29.13	33	옹가/똥	74	13.14
10	개/멍멍이	154	27.35	33	쉬	73	12.97
10	뽀뽀	154	27.35	33	이거/요거	73	12.97
12	안녕	143	25.40	33	아니	72	12.79
13	짹짹	141	25.04	33	야옹	72	12.79
14	어흥	131	23.27	39	신/신발	71	12.61
15	곤지곤지	124	22.02	39	없어/없다	71	12.61
16	짹짹	118	20.96	41	눈	69	12.26
17	도리도리	115	20.43	42	안돼	68	12.08
18	붕(부릉부릉)	109	19.36	42	손	68	12.08
19	얌얌	108	19.18	44	책	67	11.90
20	만세	105	18.65	44	언니	67	11.90
21	밥	101	17.94	46	차/자동차	66	11.72
21	아가	101	17.94	47	꿀꿀	65	11.54
23	지지	98	17.41	48	사랑해	65	11.54
25	코	97	17.23	49	오빠	65	11.54
25	음매	94	16.70	50	이모	64	11.37

영어와 이태리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처음 5-10단어는 품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소리, 일상생활 용어, 사람이름이 중심이고 몇 개의 보통명사가 산발적으로 들어갔다. 그 중

에서 명사들만 찾아보면 한국어에서는 ‘엄마’, ‘아빠’, ‘맘마’, ‘물’, ‘과자/까까’와 ‘멍멍이’ 등의 6개의 어휘가 명사에 포함되었고, 영어에서는 daddy, mommy, ball, dog, bottle의 5 단어가 있었

표 6. 한국 영아가 가장 많이 이해하는 50단어와 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순위	단어	빈도	백분율
1	작짜꿍	365	64.8	25	물	273	48.5
2	까꿍	357	63.4	27	누워	270	48.0
3	빠이빠이	348	61.8	28	목욕	269	47.8
4	하지마	334	59.3	29	손	268	47.6
5	챜챜	328	58.3	29	뜨거워	268	47.6
6	곤지곤지	324	57.5	31	밖/바깥	265	47.1
7	아빠	322	57.2	32	술가락	264	46.9
8	뽀뽀	316	56.1	33	텔레비전	260	46.2
9	도리도리	315	56.0	34	차/자동차	252	44.8
10	안돼	313	56.0	35	신/신발	252	44.8
11	할머니	310	55.1	36	먹어	252	44.8
12	전화	308	54.7	37	양말	251	44.6
13	기저귀	306	54.4	37	할아버지	251	44.6
14	공	304	54.0	39	앉아	250	44.4
15	맘마	303	53.8	40	모자	249	44.2
15	사랑해	303	53.8	41	개/멍멍이	238	42.3
17	컵	302	53.6	42	밥	225	40.0
18	만세	294	52.2	43	입	221	39.3
19	지지	292	51.9	44	코	220	39.1
20	책	291	51.7	44	안아	220	39.1
21	엄마	285	50.6	46	일어나	216	38.4
21	안녕	285	50.6	47	베개	215	38.2
23	줘/주세요	284	50.4	48	(잠)자	214	38.0
25	박수쳐	283	50.3	49	우유	212	37.7
25	과자/까까	273	48.5	50	와	211	37.5

으며, 이태리어에서는 “mamma(엄마)”, “papa(아빠)”, “pappa(음식/식사시간)”, “nonna(할머니)”, “acqua(물)”, “nonno(할아버지)”의 6개의 단어가 있었다. 따라서 영아들이 표현하는 초기 단어들은 언어

와 관계없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고 이태리어에서는 nonna(할머니)와 nonno(할아버지)가 포함되는 것이 문화특수적인 특성으로 보인다. 한국 영아가 가장 많이 표현하는 50어휘를 품

사별로 보면 대부분이 명사였다. 동사는 30위에 '주세요', 33위의 '용가/똥', '쉬'와 48위의 '사랑해'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와 이태리어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며 영어와 이태리어에서도 초기 10단어까지는 동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최초 50단어를 보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하나도 없고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태리어에서는 "DARE"(주다)라는 동사가 하나 포함되었다. 따라서 영어, 이태리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영아의 초기 표현어휘 중에 동사는 매우 적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Gopnik & Choi, 1995; Tardif, Fletcher, Liang, & Zhang, 2002)

영아들이 표현하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표현과 이해어휘를 100위까지 비교해보면, 표현어휘 100개 중 27개가 이해어휘 100개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였으며, 이해어휘 100개를 중심으로 볼 때도 26개가 역시 표현어휘 100개에 속하고 있었다. 이는 표현어휘들은 대부분 이해되는 어휘라고 볼 수 있으나 100위까지의 순위를 고려할 때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는 26~27% 정도 일치하였다.

영아들이 가장 먼저 이해하는 어휘 50개 중에 표현어휘 50단어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는 '텔레비전', '배개', '와'의 3단어였다. 이는 영아들이 초기에 이해하는 대부분의 단어들 중에서 발음이 어려운 몇 단어들(예: 텔레비전, 와) 제외하고는 곧 표현하는 단어가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51위 이후 100위까지의 이해 단어들 중에서는 표현단어에 속해있지 않은 단어가 23단어나 되었다. 예를 들어, '문', '빗', '이불', '연필', '집', '세수' 등의 단어들은 이해단어의 순위로는 50~70위 사이에 있지만 표현단어 100위에는 속하지 않았다. 이러한 단어들은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여 영아가 이해는 하지만 발음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의 기능으로 볼 때 영아에

게 꼭 말하여야 하는 단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들이 가장 먼저 표현하는 어휘 50단어를 중심으로 보면 이 중에 이해어휘 50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휘가 9개로 '어흥', '붕', '음매', '쉬', '이거', '아니', '언니', '꿀꿀', '오빠'이었다. 이 중 '언니', '오빠'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호랑이', '차', '소' 등에 해당하는 유아어로 부모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그 특성 상 영아들이 사용하기에 비교적 쉬운 어휘들로 보인다. 표현어휘 51위부터 100위까지에 속하는 어휘 중 이해어휘 100위에 속하지 않는 것도 역시 '뽀뽀', '뚝뚝', '칙칙폭폭'과 같은 의성어들이 포함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표현어휘 51위부터 100위 사이에는 '안해', '싫어', '아니야', '하지마' 등의 부정의 의사를 표현하는 어휘가 4개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외에도 '또(53위)', '뽕(54위)', '예뻐(59위)', '귀(69위)', '꿀(74위)', '사탕(78위)', '고마워(81위)', '호랑이(82위)', '바나나(90위)' 등의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해어휘 100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른들이 말해주는 빈도는 덜 빈번하더라도 영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로 보인다.

이처럼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들을 순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빈번하게 제시되는 어휘가 먼저 습득된다는 연합주의자들의 주장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Bloom의발현적 통합모델(2000)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기 (표현)어휘 습득에는 지각적 현저성, 개념의 구체성, 제시빈도, 의사소통의 요구 등과 발음의 용이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8~17개월 한국 영아들의 초기 어휘발달을 살펴본 결과,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언어발달의 이정표를 달성하

는 월령은 17개월이며, 초기의 어휘발달에서 이해어휘는 표현어휘보다 3배정도 더 많았다. 또한 동일 월령에서도 개인차가 심해서 17개월의 경우 표현어휘가 0개부터 최고 228개 까지 보고되었으며 남아 보다 여아들이 표현어휘가 더 많았다. 어휘발달을 월령별로 추적해 보면, 돌 직후에 이해어휘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으며 표현어휘수는 이보다 1개월 뒤인 13개월에 급증하였고 17개월에도 표현어휘가 급증하여 주 평균 3개의 새로운 표현어휘가 습득되고 있었다.

한국 영아의 월령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수를 미국영아, 이태리 영아와 비교해보면 16개월의 경우 미국 영아보다 적고 이태리 영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피험자수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영아들의 초기 표현어휘의 내용구성을 보면 광의로 해석하여 명사류는 71%, 협의로 볼 때 보통명사는 26.7%를 차지하였고 반면에 동사는 4.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의 습득과정이 한국어와 언어적 구조가 다른 영어나 이태리어의 초기 습득과정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며 이는 영아의 초기 어휘습득과정에서 언어특수성가설보다는 제약성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어휘들과 이해하는 어휘들을 순위별로 비교하여 본 결과, 영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초기 10단어들은 의성어나 일상생활 용어들(예: '멍멍', '까꿍', '빠이빠이')와 보통명사(예: '엄마', '아빠', '맘마', '물', '과자/까까')가 함께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초기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아에게 가장 효용성이 높은 어휘들이 먼저 습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기 어휘습득을 설명하는 이론 중 영아 개인의 인지발달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습득을 강조하는 이론(예: Werner와 Kaplan, 1950;

Piaget, 1926; Markman, 1989)보다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맥락 속에서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상호작용주의 이론들(Bloom, 1998; Bruner, 1974/1975; Tomasello, 1992)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고 이해하는 어휘들 50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 이해어휘의 30% 미만만이 표현되고 있어서 연합주의자들(Plunkett, 1997; Smith, 1995)이 주장하는 바처럼 자주 빈번하게 듣고 이해한다고 곧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아가 처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효용, 발음용이성 등 더 많은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어휘습득의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가(예: 초기 50단어, 혹은 초기 100단어, 혹은 전체 어휘수, 비율 등)에 따라 자료를 잘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르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어휘습득의 시기별로 어휘습득을 인도하는 이론이나 단서들이 다르므로 언어습득을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던 '발현적인 통합모델(emergentist coalition model)'(Bloom, 1998)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어휘습득의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가(예: 초기 50단어, 혹은 초기 100단어, 혹은 전체 어휘수, 비율 등)에 따라 자료를 잘 설명하는 이론들이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어휘습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모보고에 의한 어휘체크리스트의 방법뿐 아니라 영아의 실제 자연발화 등 다양한 자료들이 함께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배소영 (2003). 영유아기 의미평가도구 MCDI-K의

- 타당도와 신뢰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2), 1-14.
- 배소영 (2002). MCDI-K 영유아용. 한국영어발달 연구센터.
- 이상금, 정세화, 이은화, 이정환 (1972). 3·4·5세 아동의 회화에 나타난 어휘조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9, 337-427.
- 이성진과 김광웅 (1976). 한국 아동의 종단적 연구 II. 행동과학연구, 90.
- 이수향 (1999). 1 1/2-2세 정상아동의 용언발달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복, 장유경 (1999). 어휘획득 과정에서의 언어적 입력과 인지적 제약.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49-65.
- 이연섭, 권경안, 정인실 (198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연구(I).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장유경 (1997). 한국 유아의 초기 어휘획득에서 제약성의 역할(I). 인간발달연구, 4, 76-87.
- 장유경, 이근영, 광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0.
- 조명한 (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은희 (200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 연구 :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htar, N. & Tomasello, M. (2000). The social nature of words and word learning. In R. Golinkoff & K. Hirsh-Pasek (Eds.), *Becoming a word learner: A debate on lexical acquisition*. Oxford, U. K. L Oxford University Press.
- Anglin, J. (1993). Vocabulary development: A morphological analysi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58 (10, Serial No. 238).
- Au, T. K., Dapretto, M., & Song, Y. K. (1994). "Input vs. constraints: Early word acquisition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3, 567-582.
- Baldwin, D. A. (2000). Interpersonal understanding fuels knowledge acquisit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 40-45.
- Bates, E., Dale, P., & Thal, D.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ies of language development. In P. Fletcher & B. MacWhinney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96-151). Oxford, England: Blackwell.
- Bates, E., & Carnevale, G. F. (1993).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 Review*, 13, 436-470.
- Bates, E., Bretherton, I., & Snyder, L. (1988). *From first words to gramm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tes, E., Marchman, V., Thal, D., Fenson, L., Dale, P., Reznick, S., Reilly, J., & Hartung, J.(1994). Developmental and stylistic variation in the composition of early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1:1, 85-124.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use of single-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The Hague: Mouton.
- Bloom, L. (1993). *The transition from infancy to language: Acquiring the power of exp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1998). Language acquisition in its developmental context. In D. Kuhn and R. S. Siegl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
- Bloom, L., Tinker, E., & Marguluis, C. (1993). The words children learn: Evidence against a noun bias in children's vocabularies. *Cognitive Development, 8*, 431-450.
-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s*. London: George Allen.
- Bruner, J. (1974/1975). From communication to languag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Cognition, 3*, 255-288.
- Bretherton, I., & Bates, E. (1984).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 from 10 to 28 months. In R. N. Emde & R. J. Harmon (Ed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pp. 229-261). New York: Plenum.
- Carey, S. (1978). The child as word learner. In M. Halle, J. Bresnan, & G. A. Miller (Eds.), *Linguistic theory and psychological reality* (pp. 264-293). Cambridge, MA: MIT Press.
- Carey, S., & Bartlett, E. (1978). Acquiring a single new word.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15*, 17-29.
- Chang-Song, Y. K., & Pae, S. (2003). Noun versus verb bias revisited. *Speech Sciences, 10*, 131-141.
- Caselli, M. C., Casadio, P., & Bates, E. (2001).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Italian.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Caselli, M. C., Bates, E., Casadio, P., Fenson, J., Fenson, L., Sanserl, L., & Weir, J. (1995). A cross-linguistic study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 Dale, P. S. (1991). The validity of parent report measure of vocabulary and syntax at 24 month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4*, 565-571.
- Dore, J. (1979). What's so conceptual about the acquisition of linguistic structures? *Journal of Child Language, 6*, 127-137.
- Dromi, E. (1987). *Early lexical development*.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omi, E. (1993). The mysteries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In E. Dromi (Ed.), *Language and cogni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32-60). Norwood, NJ: Ablex.
- Fenson, L., Dale, P., Reznick, J. S., Thal, D., Bates, E., Hartung, J., Pethick, S., & Reilly, J. (1993).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Thal, D. J., & Pethick, S. (1994). Valid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Serial No. 242).
- Fernald, A., Pinto, J. P., Swingle, D., Weinberg, A. & McRoberts, G. W. (2001). Rapid Gains in speed of verbal processing by infants in the 2nd year.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entner, D. (1982). Why are nouns learned before verbs: Linguistic relativity versus natural partitioning. In S. A. Kuczaj II (Ed.), *Language development: Vol. 2. Language, thought and culture*. Hillsdale, NJ: Erlbaum.

- Gopnik, A., & Melzoff, A. (1987). The development of categorization in the second year and its relation to other cogni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s. *Child Development*, 58, 1523-1531.
- Gopnik, A., & Choi, S. (1995). Names, relational words,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English and Korean-speakers: nouns are not always learned before verbs. In M. Tomasello & W. Merriman (Eds.), *Beyond names for things: young children's acquisition of verbs* (63-80). Hillsdale, NJ: Erlbaum.
- Gopnik, D., & Choi, S. (1990). Do linguistic differences lead to cognitive differences?: A crosslinguistic study of semantic and cognitive development. *First Language*, 10, 199-215.
- Goldin-Meadow, S., Seligman, M., & Gelman, R. (1976). Language in the two-year-old. *Cognition*, 4, 189-202.
- Hart, B., & Risel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s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s Co.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input to acquire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36-248.
- Hirsh-Pasek, K., & Golinkoff, R. (1991). Language comprehension: A new look at some old themes. In N. Krasnegor, D. Rumbaugh, R. Schieffelsbusch, & M. Studdert-Kennedy (Eds.), *Biologic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language development* (pp.301-320). Hillsdale, NJ: Erlbaum.
- Lamb, M. E., Bornstein, M. H., & Teti, D. M. (2002). *Development in infancy: An Introduc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Nelson, K. (1973). Structure and strategy in learning to talk.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8(Serial No. 149).
- Markman, E. (1989). *Categorization in children: Problems of induction*. Cambridge, MA: MIT Press, Bradford Books.
- Markman, E., & Hutchinson, J. E. (1984). Children's sensitivity to constraints on word meaning: Taxonomic vs. thematic relations. *Cognitive Psychology*, 16, 1-27.
- McShane, J. (1980). *Learning to tal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gy, W. E., & Anderson, R. C. (1984). The number of words in printed school English.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304-330.
- Ninio, A. (1995).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s in the single-word period and the vocabulary spurt. In K. E. Nelson & Z. Reger (Eds.), *Children's langu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viatt, S. (1982). Inferring what words mean: Early development in infants' comprehension of common object names. *Child Development*, 53, 274-277.
- Pae, S. (1993) Early vocabulary in Korean: Are nouns easier to learn than verb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sas.
- Piaget, J. (1926). *Language and the thought of the chil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Plunkett, K. (1997). Theories of early language acquis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4), 146-153.
- Slobin, D. (Ed.). (1992).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 language acquisition (Vol. 3.)*. Hillsdale, NJ: Erlbaum.
- Smith, L. B. (1995). Self-organizing processes in learning to learn words: Development is not induction. In C. A. Nelson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Vol. 28). Manwha, NJ: Erlbaum.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Cyphers, L., Toda, S., & Ogino, M. (1991). Language and play at one year: A comparison of toddlers and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19-42.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Kahana-Kalman, R., Baumwell, L., & Cyphers, L. (1998). Predicting variation in the timing of linguistic milestones in the second year: An events-history approa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5*, 675-700.
- Tardif, T., Fletcher, P., Liang, W.L., & Zhang, Z.X. (July, 2002). *Nouns and verbs in children's early vocabularies: A cross-linguistic study of the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t Inventory in English, Mandarine, and Cantonese*. Poster presented at Joint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Child Language and Society for Research in Communication Disorders. Madison, WI.
- Tardif, T., Gelman, S. A., & Xu, F. (1999). 'Putting the "noun bias" in context: A comparison of English and Mandarine.' *Child Development, 70*, 620-635.
- Tomasello, M. (1992). The social bases of language acquisition. *Social Development, 1*, 67-87.
- Vygotsky, L. S.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Werner, H., & Kaplan, E. (1950). Development of word meaning through verbal context: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Psychology, 29*, 251-257.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s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7*, 265-279.
- 1 차원고접수 : 2004. 4. 15.
수정원고접수 : 2004. 6. 3.
최종게재결정 : 2004. 6. 10.

Early lexical development of Korean infants: 8~17 Months

You-Kyung Chang-Song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The first stage of lexical development was examined with 563 Korean infants between 8 and 17 months of age. The results show that infants understood 3 times more words than they produced and production reached a 50-word milestone at around 17 months. Also girls produced more words than boy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mprehension. Finally, verbs occupy only 4% of total production vocabulary, whereas nominals(broadly defined) or nouns (narrowly defined) accounted for 71% or 27% of total production vocabular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English- and Italian-speaking infants' data in the literature and revealed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in the composition of early productive vocabularies among different languages.

Key words : lexical development, expressive words, receptive words, nouns, verbs, 8~17 months